

멕시코의 경제위기와 농촌지역의 국제 노동이주

주중택(국립민속박물관)

목차

- I. 경제 위기와 멕시코 농촌의 사회경제 구조
- II. 노동이주와 멕시코의 농촌사회
- III. 산 톨 델 에스파도의 노동이주와 농촌가구
- IV. 산 톨 델 에스파도의 가구구성과 노동이주
- VI. 결론

I. 경제 위기와 멕시코 농촌의 사회경제 구조

다른 나라의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농촌의 빈곤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이다.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경제발전에 따른 성과의 분배도 도시지역이나 북쪽의 국경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게다가 농업을 위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생산규모를 늘이거나 새로운 영농기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태에서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나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경제불황을 만나면 영세농가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불균등한 토지분배와 불합리한 토지제도는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을 한층 어렵게 만든다. 가구당 경지면적이 넓은 북부지역과 비교해서, 인구에 비해 경작지가 부족한 중부와 남부지역에서는 영세한

토지규모에 많은 노동력이 매달려서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1992년에 살리나스(Salinas) 행정부에 의해 농업의 근대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마을의 공동토지인 에히도(ejido)의 사유화는 많은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멕시코 혁명 이후에 아시엔다(hacienda)를 해체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배했던 토지에 대해 경작권만을 인정하던 것을 이제는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를 팔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외부인과의 합작도 가능하게 만들었다(주종택 1997:173). 물론 사유화가 실시되어도 대부분의 에히도 토지가 천수답이고 한계지라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토지매매를 통해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농민들은 농업 외의 소득을 얻는 수단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중의 하나가 국제 노동이주이다.

특히 멕시코 농촌의 경제적 현실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도 상이하다. 많은 국내외 자본이 투자되어 수출을 목표로 하는 상업작물을 재배하는 멕시코의 북부 농촌지역과는 달리, 소규모의 토지에서 생계작물인 옥수수, 콩을 경작하는 중부와 남부 지역의 가난한 농민들은 부족한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북미로의 국제 노동이주를 선호한다. 특히 관개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토지에서 낮은 기술력과 열악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은 지극히 낮다. 사유지에 비해 마을의 공동토지인 에히도의 비중이 높은 중부와 남부 지역은 비료와, 농약, 개량된 종자의 보급 등 농업의 기본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4년 1월 1일부터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사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혹은 TLC: Tratado de Libre Comercio)의 체결 이후에 멕시코인들의 경제적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멕시코의 경제적 고용기회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예

를 들어 해외의 값싼 공산품이 유입되면서 소규모의 공장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어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례가 나타난다(Gutmann, 1998:300-302). 이런 현상은 도시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농촌 가구 구성원들이 인근의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들도 고용기회의 감소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도시 사람들의 소득 감소는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기타 생산품의 판매에도 타격을 준다.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기계화된 자본제적 농장에서 생산되는 값싼 농작물이 유입됨으로써 생계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부분적으로 남는 작물을 파는 가난한 농민들은 농업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94년 말부터 시작된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농촌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물론 이런 경제위기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중남미 국가에 있어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1980년대의 경제위기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으로의 이주 형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주자들이 발생했고,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사람들도 이주 대열에 합류했으며 이주를 하는 원주민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Gledhill, 1998:282). 따라서 새로운 경제위기의 도래는 새로운 농촌 사회의 변화와 이주의 형태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의 경제적 현실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은 생계를 외부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국제 노동이주를 한 사람들이 멕시코로 송금을 한 액수는 엄청나서 멕시코 국가경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세계은행의 1996년 보고에 의하면 멕시코로 유입되는 이주 노동자들의 연간 송금액은 37억 달러로 이집트의 50억 달러 이상, 인도의 약 50억 달러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Farrag 1997:317). 노동이주의 결과로 얻어지는 송금은 거의 농촌지역에 유입되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나타나는 노동이주의 성격과 형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농촌사회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II. 노동이주와 멕시코의 농촌사회

이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보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발생하고, 또한 이주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 지역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과정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주는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지리적 여건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이주가 더 중요하고 활성화된 곳도 있다. 멕시코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주의 특징은 도시로의 이주뿐만 아니라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쉽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으로의 이주가 멕시코의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간 위험하기는 하지만 훨씬 일거리가 많고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농민들이 미국으로 노동이주를 한다.

농촌의 경제적 기회가 빈약하고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멕시코에서 북미지역으로의 국제 노동이주는 농촌의 가구유지와 생계수단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기본시설이 미약한 상태에서 노동이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이렇듯이 국제 노동이주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소득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버는 것보다 많아서 멕시코 농촌경제의 악화에 따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현상을 '이주 신드롬'(the migrant syndrome)이라고 부른다(Arizpe, 1978:92; 1981:645; Reichert, 1981:64; Wiest, 1973:199). 미국으로의 노동이주는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의 여러 농촌지역에서 북미로 노동이주를 떠나는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문화적 특징의 하나로 되어 있다(Gledhill, 1991:231).

결국 멕시코 농촌의 자본제적 발전에 수반되는 변화에 따라 노동이주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다.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방정책과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주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또한 토지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줄어든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 일시적 이주를 선호한다(Escobar et al, 1987:49).

그렇지만 북미로의 이주가 멕시코 농촌지역의 현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양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조건 및 미국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노동이주는 20세기 초의 멕시코 혁명 때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사회적 혼란기에 경제적 기회가 박탈당하자 많은 수의 농민들이 국경을 넘어 일거리를 찾아 떠났다. 이어서 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면서 미국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브라세로(bracero)라는 이름으로 계약노동자들을 멕시코에서 불러들이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브라세로 계획은 끝이 났지만, 한번 노동이주의 연결망을 형성한 멕시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연결고리를 통해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이주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농촌의 경제적 궁핍 때문에 북미로의 노동이주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북미의 이주자에 대한 수요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 계속해서 멕시코에서 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요구했다(Bustamente, 1997:1116).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는 국경의 통제를 완화해서 불법 노동자의 유입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한편 수시로 불법으로 체류하는 농업노동자들에게 사면을 허용한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불법 노동이주를 적극적으로 통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의 노력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어서 멕시코에서의 불법 노동이주를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 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항상 임금이 낮

은 농업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멕시코의 싼 노동력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노동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국경을 넘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경을 넘는 것이 갈수록 쉬워진다는 것은 국경을 넘다가 체포될 확률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70-1975년 사이에는 한 번 국경을 넘을 때마다 체포될 확률이 0.35-0.40이었는데 1990-1994년 사이에는 0.15-0.20에 그치고 있다(Singer and Massey 1998:585). 또한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잡혀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고 다시 국경너머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국경을 넘어서 일거리를 찾아갈 수 있다. 불법으로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 일자리를 찾아가는 이주자들은 미국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장벽을 헤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인적 사회적 자본(human and social capital)을 활용한다. 이런 풍부한 이주자들의 개인적 사회적 자원으로 인해 제도나 법의 제정, 물리적 장애물을 이용해서 국경을 통제하려는 미국정부의 노력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Singer and Massey, 1998:562).

위의 사실을 고려하면 이주를 결정할 때, 널리 확산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가 경제적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적 자본이 된다(Wilson, 1998:395-396, 398)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주자들은 주어진 시기와 장소에 따라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연결망을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멕시코 농촌 지역에서 가는 이주자들도 미국에 가서는 다양한 장소에 가서 돈을 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서도 일하는 장소가 변화한다. 이주를 한 다음에도 이주자들은 연결망을 형성하는 구성원들의 도움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다(Wilson, 1998:396-397). 노동을 하는 장소나 형태가 연결망의 주요 지점이 되어서 필요할 때면 요긴하게 사용된다. 가난한 농민들의 이런 전략을 분석해 보면 '약한 연결(weak ties)의 힘'이 일거리를 획득하는데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한 연결은 자신과 그가 알고 있는 느슨한 안면관계를 통한 연결망을 의미하고, 강한 연결(strong ties)은 자신과 친한 친구, 가족 및 친척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정보는 주로 약한 연결을 따라 사회체계의 먼 부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친척과 친구들 사이의 정보의 다리를 구성한다(Wilson, 1998:397-398). 예를 들어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에서 일거리는 주로 고용인(patrón)에 의해 주어지고 이들은 친구나 친척 그리고 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약한 연결을 통해 취업이 되면 이런 관계는 점차 강한 연결로 바뀌게 된다. 또는 결혼이나 대부제도(compadrazgo)를 통해 약한 연결이 강한 연결로 변화하기도 한다. 즉 이주자들은 초기에는 약간의 안면관계를 가진 사람의 도움으로 국경은 넘거나 일자리를 구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회적 관계를 확립해서 강한 연결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주를 했다고 해서 고향마을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주를 하기 전이나 이주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유대를 가지려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은 수시로 방문을 해서 고향마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Eades, 1987:10).

국제 노동이주의 성격을 보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당수의 노동이주자들이 수시로 국경을 통해서 드나든다는 의미에서 이들의 이주형태는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법 혹은 합법 이주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주자들이 순환적, 일시적 노동이주를 목표로 하는 사례가 흔하다(Durand and Massey, 1992; Hulshof, 1991:46)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주자 개인의 의도나 생애 경력에 따라서 '일시적' 이주와 '영구적' 이주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Escobar et al, 1987:43). 즉, 멕시코와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이주성향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구히 정착할 목적으로 넘어 간 사람도 마을의 축제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의 경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수시로 방문할 수 있고, 또 일시적으로 부족한 가구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단기간 동안 일할 목적으로 간 경

우에도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어서 영구적 이주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주자를 보낸 멕시코의 농촌 지역에서 이주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은 이주자의 거주기간과도 관계가 있다. 멕시코에서 노동이주를 한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 보다 미국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Marcelli and Heer 1997). 이것은 멕시코가 미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왕래를 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넘어 온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 일 것이다. 또한 멕시코 농촌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찍 돌아갈 필요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멕시코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농촌 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이주자의 수와 거주기간이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하는 불법 노동자들이 예상보다 빨리 멕시코로 돌아가는 데에는 이주자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미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작용한다.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은 추방을 당할 염려와 미국 체류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법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법적인 권리를 사용하기를 꺼린다(Smith, 1998:8). 다시 말해 법적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실제로 자신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보다 멕시코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까닭으로 이주 후의 정착기간이 예상보다 짧아지는 경우가 많다.

Ⅲ. 산 환 델 에스파도의 노동이주와 농촌가구

노동이주와 멕시코 농촌의 경제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쪽 지역에 위치한 오아하카(Oaxaca) 주의 산 환 델 에스파도(San Juan del

Estado)라는 마을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산 환 델 에스파도는 오아하카 계곡의 북서쪽에 있는데 주의 수도인 오아하카 시로부터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현지조사는 1993년 5월부터 1994년 8월까지 그리고 1997년 2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1994년 현재 산 환 델 에스파도에는 536가구에 2,57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1997년에는 인구가 약간 늘어 2,610명이 살고 있다. 표본조사를 위해 163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질문지와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오아하카 주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이 빈약하고 토양이 좋지 않다. 특히 오아하카 주는 별다른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오아하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1980년에 오아하카는 사까떼까스(Zacatecas)와 이달고(Hidalgo) 다음으로 외부로의 이주자의 수가 많은 주였다(Ríos Vázquez, 1992:27). 1970년대 이후로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오아하카의 국제 노동이주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Luque and Corona, 1992:15-17).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는 오아하카의 다른 마을에 비해 이주자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못했다. 외부로의 이주도 비교적 늦게 시작되어 인근의 다른 마을보다 10년에서 20년 정도 늦은 1980년부터 멕시코 시나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토지는 충분하지 않지만 삼림자원이 풍부해서 목재생산을 통한 소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2년에 목재생산이 마을에서 중단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북미로 떠나갔다.

이 마을에서 미국으로 가서 노동력을 이용한 임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것은 1945년부터이다. 처음에는 4명이 브라세로 계획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로 떠났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친척이나 친구관계를 활용해서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964년에 브라세로 계획이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산 환 델 에스파도로 돌아왔다고 한다. 멕시코의 다른 지역이나 오아하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브라세로 계획이 끝나자마자 불법 노동이주가 일어났다. 그러나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는 이보다 늦은 1980년대에 마을 사람중의 하나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버는 이웃 마을의 친구를 따라서 국제 노동이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1994년 현재 마을 전체에서 약 10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미국에서 불법 또는 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북쪽에 위치한 산 마르코스(San Marcos)와 비스타(Vista)에 몰려있다(Joo, 1995:134-137).

〈표 1〉 연도별 국제 노동이주 현황

년	이주가구 수	이주자 수
1993	24	43
1997	32	57

<표1>에서 보듯이 1980년대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미국에 간 것에 비해 1990년대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주 대열에 참여하고 있으며 1995년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많은 가구와 이주자가 국경을 넘어갔다. 조사 대상 163가구 중에서 1993년과 1997년을 비교하면 국제 노동 이주에 참여한 가구 수는 8가구, 이주자의 수는 18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에 넘어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3가구에 4명이 있어서 실제로는 11가구에 22명이 1995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새로 일거리를 찾아 나간 셈이고, 마을 전체로서는 약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롭게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경제위기는 산 환 델 에스파도의 이주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2〉 가구별 이주자 수와 평균 가족 수

이주자 수	가구 수	평균 가족 수
1	16	5.9
2	8	7.4
3	3	8.0
4	5	8.3

* 1997년 현재

<표2>를 살펴보면 미국으로 노동이주를 한 사람이 있는 가구는 대체로 가구의 규모가 큰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중에 1명이 이주한 가구 수가 16으로 가장 많다. 마을 전체 536가구의 평균 가족 수가 4.8명인데 비해 조사 대상 가구 중에 1997년 현재 미국으로의 이주자가 있는 32 가구의 평균 가족 수는 6.6명으로 약간 높다. 또한 이주자의 수도 대체로 가구의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주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평균 가족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제한된 경제적 자원과 기회를 갖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부양해야 될 가족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구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구성원이 미국으로 가서 소득을 획득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어진 환경에서 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대시키려는 가구들의 일반적인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생애의 단계, 가구의 생애주기(Chayanov, 1966 참조), 노동 기술이나 다른 개인적 성향에 따라 목적지를 정한다(Escobar et al, 1987:45)고 하는데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도 이주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일단 산 마르코스나 비스타로 갔다가 그 후에 이주자들의 형편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 이주자들이 퍼져 있다. 할리스코(Jalisco) 주의 로스 아르볼레스(Los Arboles)에서 넘어 간 이주자들을 보면 그들이 임금노동을 하기 위한 목적지는 그 지역의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변한다(Wilson, 1998:399)고 한다. 산 환 델 에스파도의 사람들도 1990년대 이후가 되면서 캘리포니아 남부뿐 아니라 동부와 중서부 지역까지 일을 찾아서 나서고 있다.

노동이주와 농촌의 가구는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주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없이는 농촌가구의 유지가 불가능하며, 또한 농촌가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주자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주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고 이는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Escobar et al, 1987:58).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도 미국으로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농업을 소홀히 하면서 이주를 통해 얻는 임금에 의존하는 가구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송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다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수가 늘어났다. 또한 미국에 간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번 돈으로 토지와 농업을 위한 여러 설비를 구입해서 마을에서 새로운 가구를 구성해서 농업이나 그밖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노동이주가 농민들을 농업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을 부분적으로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갑작스런 임업생산의 중단으로 마을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조사지에서 기술이나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생산수단을 여유 있게 소유하지 못 하는 농촌가구는 외부사회에 생계수단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노동력을 팔기 쉬우며 훨씬 높은 임금을 벌 수 있는 국제 노동이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선호되고 있다(주종택, 1995: 253-254). 즉 노동이주의 성격과 형태가 주어진 농촌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IV. 산 환 델 에스파도의 가구구성파 노동이주

농촌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때, 농촌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농촌 가구의 인구적 성격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주의 결정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개인보다는 집합적 단위로서 가구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Joo, 1995:131). 물론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농촌가구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유일한 전략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주는 농촌 가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구조적 제약 요소에 대항하거나, 소득의 원천을 다 변화하려는 여러 전략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Chonchol, 1990:149; Wilson, 1993:112).

이주의 성격과 형태를 파악하려면 이주를 결정하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이나 가구들이 외적인 조건의 변화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의 시기와 방법, 이주해야 할 사람을 이해하려면 농촌 가구의 인구역학과 경제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국경을 넘는 이주의 경우에 이주자의 연령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 노동이주는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체력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겠다. 미국에 건너 간 다음에도 수시로 단속을 피하거나 일자리를 따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여자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도 남자들처럼 평균 나이가 낮은 편이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 불법으로 이주한 여성들 나이의 중간값은 27세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라틴계 여성들의 나이의 중간값인 33세, 백인 여성의 나이의 중간값인 41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Chavez et al 1997:92). 대체적으로 20대와 30대의 노동력을 많이 가진 가구가 이주를 통한 임금 노동에 종사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의 규모가 크다고 해도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많은 가구는 이주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 마을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의 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미국에 아는 친척이 있으면 매우 유리하고 마을의 친구나 친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미국에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에 안면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함께 갈 수 있다.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도 비교적 여러 사람을 만나기 쉬운 마을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정보를 쉽게 얻어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를 간

반면에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이주대열에 합류했다(Joo, 1995:142-144).

이주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경제적 원인이 중요하지만 이주가 한 사회내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이주가 촉진된다. 즉, 농촌사회의 오랜 이주의 전통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연결망은 자연적인 타성을 갖게 되어, 점점 경제적 결정 요인에 의해서만 이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Gledhill, 1991:242).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성격과 강도, 그리고 빈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조사지에서도 이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연결망은 소유하고 있어도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위기 등 상황변화에 따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농촌의 빈곤이 이주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해도 빈곤한 가구가 항상 많은 이주자를 내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외부사회에 대한 경험과 적응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가 이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중간계층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는데(Durand and Massey 1992:17), 가장 가난한 농민들은 초기의 여행과 적응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Roberts 1985:376). 특히 과거에 농촌 지역을 벗어나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당장 떠난다고 해도 일자리를 바로 구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교통비와 초기의 정착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경제위기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도 이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서 경제위기를 맞아 이주를 하게 된 여러 가구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이주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지를 알아본다.

① 첫 번째 사례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껴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마을에서도 과거보다 외부사회와 접촉이 증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아서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웃이나 친구를 쫓아서 미국으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가구는 최근에(1995년) 미국에 간 경우이다.

“60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나보다 세 살 적은 남동생이 하나 있다. 사유 토지 (pequena propiedad)가 5ha 있는데 0.5ha는 관개 시설이 되어 있고 4.5ha는 천수답이다. 그밖에도 3ha의 땅이 더 있는데 거의 수확이 되지 않아서 버려두고 있다. 주로 옥수수와 콩을 심어서 자급자족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옥수수는 1,000kg, 콩은 300kg을 생산한다.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먹고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수확하기 전인 10월과 11월에는 가게에서 옥수수를 사서 먹는다. 가축의 사료로 쓰는 알팔파를 재배하는데 자라는대로 계속해서 잘라서 팔 수 있어서 가끔 현금이 필요할 때는 여기서 충당한다. 그래서 겨우 먹고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 동안은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기를 원했다. 미국에 가서 일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루이스(Luis)라는 형이 있었는데 미국에 일하러 가서 있다가 1990년에 총을 맞아 죽었다. 저녁 8시에 길거리에서 총을 맞았다고 하는데 누가 쏘는지 왜 그랬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 미국에 가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택시도 하나 사고 집도 새로 짓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부모들도 어려워도 여기서 버티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80년대처럼 1995년에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난리였다.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것을 다 소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니까 부모들도 불안하다고 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젊은 나이에 모험을 감수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북미 자유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니 사람의 왕

래도 비교적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1995년 여름에 과거에 형이 일했던 미국인의 집에 연락을 해보니 오면 도와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 여름에 동생과 함께 국경을 넘어 갔다. 주로 정원을 관리하는 일인데 보수에 비해 힘은 거의 들지 않고 지내기도 어렵지 않았다. 문화적 차이가 심해서 때때로 고향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적할 때가 종종 있었다. 동생은 계속 있기를 원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설득해서 1996년 12월에 돌아왔다. 아직 미국으로 다시 갈지는 모르겠다. 또 경제적 문제가 닥치면 가야 될 것 같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그럭저럭 버텼지만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다.”(꼬메르시오, 28세)

② 두 번째로는 경제위기 이후 실제적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 때문에 이주를 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생계가 불가능한 집단이다.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은 가구들은 오아하카시에서 일을 하거나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 가구제조, 제빵, 상점운영 등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경제위기로 인해 물건의 판매가 저조해지고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다른 소득원을 찾기도 어려운 일이라서 국제 노동이주를 대안으로 선택했다고 한다.

“부인과 24세 되는 아들과 36세인 딸이 하나 있다. 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살림이 용이하지 않았다. 토지는 공동토지(terrenos comunales)가 0.125ha가 있는데 산 중턱에 있고 물을 댈 수가 없어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수확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 농사를 시도하다가 힘만 들고 먹을 것도 생산하지 못해서 현재는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1974년까지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내에서 돼지를 잡아서 팔았다. 그러다가 땅도 변변치 않고 수입이 시원치 않아서 도시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1974년에 뿌에블라(Puebla)로 갔다. 그곳에서 한 섬유공장에서 일했는데 수입은 농촌보다는 나왔지만 일이 힘들고 방세가 비싸서 감당하기 어려웠다.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농촌보다 돈 드는 일이 훨씬 많아져서 1987년에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와서 할 일을 찾아보아도 마땅한 것이 없어서 다시 고기를 팔았다. 매주 토요일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파는데 100kg 짜리 돼지를 170달러(미화)에 사면 약 30달러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 그런데 마을에서 생일이나 축제가 있을 때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사먹지만, 한창 농사철이어서 바쁘고 돈이 별로 없을 때는 다 팔지 못하고 집에서 먹거나 상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집들이 많이 몰려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용이한데, 우리 집은 지대가 높고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손님이 그리 많지 않다.

아내는 1991년부터 집에서 과일, 음료수 등을 내놓고 판다. 물건이 별로 없어서 상점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에 6달러 정도는 버는 셈이다. 오아하카의 시장에 가서 1주일마다 한번씩 물건을 사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아 물건을 충분하게 살 형편이 못 된다. 마을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물건이 있느냐고 물을 때가 있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최근에 딸이 이혼하고 집에 와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럭저럭 겨우 먹고 살 정도였는데 1995년부터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고기 수요가 크게 줄면서 돼지 한 마리를 한 주에 다 팔지 못해 집에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냉장고가 없어서 팔지 못하면 오래 보관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아내가 하는 장사도 제대로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각종 물건값이 올라서 전보다 물건을 사는 양이 줄었고, 또 가격이 올랐다고 오른 가격을 다 받으면 손님들이 잘 사지 않는다. 그렇게 되니까 소득이 전에 비해 $\frac{1}{3}$ 에서 $\frac{1}{2}$ 정도 줄었다. 그 동안 아들은 나를 도와서 고기 파는 일을 했다. 그렇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들도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1995년 가을에 이웃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서 일하는 아들의 친구

가 잠시 마을을 방문했다. 아들이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 같이 가자고 승낙을 했다. 1995년 10월에 1,500달러를 빌려서 미국으로 갔다. 오아하카에서 멕시코 시와 띠화나를 거쳐 로스 앤젤레스까지 가는데 1,000달러를 썼다고 한다. 띠화나에서 국경을 넘으려는데 감시가 심해 4일을 기다렸다가 가느라고 돈을 많이 썼다고 한다. 로스 앤젤레스에서는 친구가 일하는 공장에 가보니 다행히 일거리가 있다고 해서 도착한 지 3일만에 일을 시작했다. 한 달에 800달러를 받는데 방세나 식비가 멕시코보다 비싼 편이어서 많은 돈을 모으기는 어렵다고 한다. 3개월에 200불 가량 송금하는데, 그래도 농촌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고 입을 하나 덜어서 가계에 도움이 된다. 아들은 한 번 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파우스토, 64세)

③ 세번째 사례는 원래부터 노동이주가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던 가구이다. 이들은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주에 생계를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조사대상인 가구에서도 미국에 가족 구성원 중이 여러 명이 왔다갔다했는데 95년 이후 더욱 오래 그리고 자주 국경을 넘는다고 한다.

“부모는 각각 58세와 45세이고, 형제자매는 4남 3녀이다. 내가 맏딸이고 가장 어린 남동생은 이제 9살이다. 아버지는 1968년부터 주로 마을 내의 여러 집에 다니면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다. 정해진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은 집을 찾아다닌다. 별다른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 5달러를 받는다. 그나마 매일 같이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금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다. 토지는 사유지가 0.25ha 있어서 옥수수와 알팔파를 심는다. 예전에는 토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1979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3ha를 팔았고, 1989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또 경비 마련을 위해 3ha를 팔아서 남아 있는 토지가 거의 없다.

1992년에 사촌을 따라 미국에 가서 일을 시작했다. 실정을 제대로 몰라서 국경을 넘는 데도 상당한 고초를 겪었다. 그래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사촌이 다 부담했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할 이유는 없었다. 막상 가서 보니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1달 정도를 그냥 지내다가, 샌 디에고에 있는 집에서 가정부를 구한다고 해서 갔다. 월급은 한 달에 800달러를 받았는데 두려워서 밖에 거의 안 나갔기 때문에 돈을 쓸 일은 별로 없었다.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한 동안은 고생을 했다. 아이 하나에 부부만 사는 집이고 집에서 식사를 하는 때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1993년 봄에는 여동생을 불러서 일하는 집의 여주인의 소개로 다른 집의 가정부로 취업시켰다. 같은 해 가을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두 살 어린 남동생이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데리고 왔다. 동생은 농장에서 일하는데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이라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없고 수시로 멕시코와 미국을 드나든다. 나와 여동생도 부모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1994년부터는 교대로 한 집에서 일을 한다.

1994년 말부터 먹고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나와 여동생은 서로 다른 집을 구해서 계속 일하기로 했다. 어린 동생 4명이 계속 성장하면서 학교를 다녀서 학비를 대기도 벅찬 실정이다.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시로 내려가기는 어렵고 가끔 주인집에서 휴가를 내서 오는 수밖에 없다. 남동생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곳을 찾다가 현재는 자동차 정비하는 곳에서 일한다. 앞으로 당분간은 경제도 어렵고 동생들 때문에 씹씹이가 커져서 미국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다.”(까달리나, 24세)

④ 네 번째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지만 가구규모가 워낙 커서 생계에 부담이 가는 경우이다. 보통 가구원수가 5~6명이 넘으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마을에서 상당수의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사례에 나타난 가구도 가구원이 많아서 이주한 경우이다.

“1987년 2월 24일에 마을을 떠났다. 미국에 먼저 가서 일하고 있던 친구가 초청을 해서 그친구와 함께 갔다. 버스로 국경도시인 띠화나까지 갔는데 3일 걸렸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국경을 넘으려고 했다. 언덕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그러자 헬리콥터가 보이더니 우리를 쫓아왔고 잠시후에 이민국의 국경순찰대에 붙잡히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칼렉시코(Calexico)로 끌고 갔고 거기서 차에 태워 메히칼리(Mexicali)로 풀어줬다. 그날 밤에 우리는 다시 띠화나로 돌아왔고, 다시 국경 넘기를 시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다. 고속도로를 넘어서 캘리포니아의 산 이시드로(San Ysidro)에 도착했다. 산 이시드로의 공원에서 다시 국경 순찰대에 적발되어 다시 자정에 띠화나로 내쫓겼다. 다음날은 국경을 넘자마자 코요테(coyote, 돈을 받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의 차에 탔다. 한 시간 가량 달려서 캘리포니아의 비스타(Vista)에 도착했다. 일인당 요금으로 50달러씩 지불했다. 그곳에서 내 친구의 고용인을 만나서 일자리를 얻었다. 우리는 정원 가꾸는 일을 했는데, 숙소를 제공받고 하루에 25달러를 받았다. 거기서 우리는 4개월간 일을 했다. 그 지역에서는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라 피에드레라(La Piedrera)라는 곳에 가면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몇시간, 몇일, 몇주 단위로 일할 사람을 찾으러 온다. 각자의 운수에 달렸다. 나는 그 해 6월에 일단 돌아왔다.

1990년 3월 30일에 두 번째로 동생과 두 친구와 함께 미국에 일하러 가려고 띠화나로 갔다. 처음에 넘으려고 하다가 국경순찰대에 걸렸다. 그들은 오전 3시에 우리를 석방했다. 우리는 계속 따라오는 국경순찰대를 피하기 위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가는 길에서 순찰대원 하나가 우리를 쫓아오다가 넘어져서 바위에 부딪치면서 우리에게 소리를 질러 두려웠고 무서워서 죽을뻔 했다. 그들은 우리를 구석에 몰아넣고 심하게 다루었다. 우리를 구금시키고는 범죄인처럼 사슬로 묶었다. 그래서 슬픈 느낌이 들었다. 새벽 5시경에 우리는 다시 띠화나로 되돌려졌다. 그날 밤에 우리는 무사히 국경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 있었다. 샌 디에고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서 택시를

다고 산 마르코스(San Marcos)로 갔다. 거기서 반나절을 보내고 다음날 친구를 만나러 선 시티(Sun City)로 향했다. 고맙게도 그가 추천을 해주어 한 미국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서 조금 한다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일자리를 얻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를 도와서 마구간을 손보고 펜스를 치고 작은 트랙을 고치는 것이었다. 하루에 40달러를 받아서 일주일에는 240달러가 되었다. 주말이 되면 보너스로 10달러를 더 주었다. 그래서 다 합치면 250달러나 되었다.

내 동생은 그 지역의 '트라이 밸리(Tri-Valley) 조정'이라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조금 지나서 동생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둘과 친구 둘이 합쳐서 개인 집의 정원사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 받는 돈은 전과 비슷했다.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8시부터 일을 시작했다. 주로 나무나 꽃을 잘랐는데 오후 4시가 되면 일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농장의 집으로 돌아온다. 집안 일을 몇 가지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잤다. 4개의 침대가 딸린 침실과, 작은 식당, 작은 부엌 그리고 욕실이 있었다. 더운 물과 전기, 가스, 전화도 있어서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었다. 주인은 키가 크고 갈색머리를 갖고 있었다. 그는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카고, 덴버, 네바다 등지로 돌아다녔다. 농장에는 말을 키웠는데, 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욕도 시켰다.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쇼핑 물에 가서 다음 주에 먹을 것을 샀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트럭이 있어서 그것을 타고 일요일 성당의 미사에 참여하고 벼룩시장에 가서 옷도 샀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가끔 일요일 저녁에 댄스홀에 가기도 했다.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다. 매 주일 휘발유 넣는데 10달러를 쓰고, 식품비로 50달러를 썼다. 옷을 사는 비용이나 오락에 드는 돈은 별도로 들었다. 다행히 집세는 내지 않아서 부담이 없었다. 멕시코로 돌아올 때까지 약 1년간 거기서 일했다.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서류가 없어서 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순찰대원이 근처에 돌아다

널 때에는 트럭에 숨어있었다. 그렇지만 일을 할 때는 잡힐 염려가 거의 없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붙잡히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웃 사람들이 좋아서 잘 해주었고, 우리를 이해하며 도와주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충격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와 고도가 맞지 않아 고생을 하기도 했다. 마침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멕시코로 돌아오게 되었다.

내가 일하던 지역에서는 거의 백인들만 살았는데, 인종차별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나는 미국의 문화나 음식, 가게 등이 마음에 들었다. 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도 흥미로웠다. 가끔 이웃들과 농구시합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우리를 초대해서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다. 돌아 올 때에는 옷, 운동화, 전축 텔레비전, 부츠, 비디오, 녹음기 등을 샀다.

미국에 가게 된 것은 여러 곳을 알고 싶었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 집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동안 미국에 여러 번 갔다와서 소를 한 마리에 700달러 씩 세 마리를 샀다. 이번에 가서는 돈을 모아 트럭을 살 예정이다. 트럭을 사서 알팔파, 퇴비, 소 여물이나 기타 물건들을 나를 것이다. 95년에 갈 때에는 세 누이들을 데리고 갔다. 아직도 미국의 고용주와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미국에 있을 때는 두세 달에 한번씩 1,000달러를 송금했다.

1995년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어도 우리 집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어차피 밭에서 생산하는 옥수수는 겨우 먹을 만큼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 두 형제와 세 자매가 수시로 미국에 가서 일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아르놀포, 29세)

⑤ 다섯 번째로는 가구의 규모는 작아도 젊은 연령층이 풍부해서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이들은 당장 시급한 생계해결보다는 가구의 경제력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

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이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가족은 나와 부모, 그리고 25세 되는 여동생이 있다. 토지는 공동 토지가 3ha, 그리고 관개시설이 되어 있는 사유토지가 0.75ha 있다. 토지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가족 수가 적어서 먹고 사는 것은 불편함이 없다. 또 1993년까지는 마을에서 목재를 생산해서 팔 때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생활이 쏠리지지는 않았다. 나무를 베지 않으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 그나마 나이가 들어서 어디 가서 새로 일을 하기도 어려웠다. 나이도 많은데 별로 할 일도 없이 돌아다니니까 부모님도 안 좋게 생각하고 마을에서도 별로 호의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당장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임무를 내지 못한다. 젖소 6마리에서 나오는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 파는데 하루에 15개를 생산하면 10달러를 받는다. 그나마 그것이나에게는 유일한 현금 소득인데 그것도 팔리지 않는 날이면 먹어치워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인가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

1983년에 21세 되던 해에 미국으로 향했다. 처음에 가서는 고생을 많이 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다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국경을 넘는데도 보름이나 걸렸다. 가까스로 미국에 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과일이나 야채를 수확하는 일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이 돈이 없다고 급료를 6개월이나 주지 않았다. 숙식은 제공되었지만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다. 불법체류자라서 돈을 못 받는다고 어디 가서 항의할 곳도 없었다. 다른 농장에 가서 일을 1년 정도 했는데 거기서는 돈은 꼬박꼬박 받았다. 한 달에 600달러밖에 안 되었지만 나에게는 큰돈이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이민국에 4번 적발되어 그때마다 국경까지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했다. 한번 발각되면 크게 불이익은 없지만 일도 못 하고 다시 들어오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미국에 처음 와서는 너무 낯설고 인간관계가 냉혹한 것 같아서 싫었다. 그렇지만 계속 머무르다가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다. 무엇보다 자원이 풍부해서 먹고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남의 눈치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좋았다. 1년에 1-2번 고향을 방문했는데, 멕시코에 가도 가족을 제외하면 별로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오래 있고 싶지도 않아서 2-3주정도만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간다. 몇 년 전에 좋은 농장주를 만나서 불법으로 일하는 농업노동자에 대한 특별 사면을 해줄 때 혜택을 받아서 지금은 영주권이 있다. 그 후에 도시로 나와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고 급료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걱정이 없다. 돈을 좀 더 모으면 가족들도 초청할 생각이다.

1995년부터 멕시코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난리였다. 그러나 가난한 농민들로서는 항상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리고 요즘 멕시코의 농촌에서는 거의 미국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멕시코보다는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더 받는다. 1997년부터 경제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알베르토, 35세)

⑥ 여섯 번째로 가구 규모는 작아도 토지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내외적 경제변화가 대처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런 가구들은 생계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려운 경우인데, 그나마 농촌지역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다른 가구의 농사일이나 농업이외의 일거리를 맡아서 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처럼 마을의 전체적인 소득이 격감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가구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56세의 어머니와 25세의 남동생 그리고 나 모두 세 식구이다. 가족 수는 작아도 생계를 해결할 안정된 수단이 없어서 생활이 매우

불안하다. 말이 농민이지 농사도 짓지 않는다. 산 중턱에 1ha의 땅이 있는데 돌이 많고 물을 제대로 댈 수가 없어서 수확이 거의 없다. 게다가 집에서부터 12km나 떨어져 있어서 아침 6시에 출발하면 정오가 되어서 도착한다. 그래서 경작을 포기한 지 오래다.

어머니가 그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느질을 해서 겨우 먹고살았다.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힘들어지자 1989년부터 동생이 마을에서 자른 나무를 제재소까지 실어 나르는 마을 소유의 트럭 운전사로 일을 했다. 일거리만 많으면 그럭저럭 수입이 좋은데 마을에서 벌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재의 양이 들쭉날쭉 했다. 그래도 없는 형편에 한 달에 200달러는 벌 수 있어서 좋았다. 1992년부터 목재생산이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럭을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일이 어렵게 되어서 다른 것을 알아보다가 택시 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동생이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했다. 정해진 택시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 대신에 운전을 하는 것이었다. 한 달에 평균 10일 일하는데 하루에 23달러는 벌 수 있다. 택시를 운전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사고를 냈다. 접촉사고여서 두 차가 많이 파손되고 손님도 조금 다쳤다. 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서 돈을 물어줄 수가 없어서 빚을 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말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1993년에 옆집에 사는 친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이었다. 델 마르(Del Mar)라는 작은 도시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다. 일은 고달팠지만 그래도 돈을 번다는 생각에서 마음은 편했다. 한 달에 800달러를 받아서 200달러씩 꼬박꼬박 송금했다. 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빚도 반 이상을 갚았다. 계속 일을 해서 빚을 마저 다 갚고 생활 밀착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생은 택시 사고가 난 후에 멕시코 시에 가서 일을 한다고 1994년에 갔는데 가자마자 경기가 어려워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고 1996년에 돌아왔다. 동생도 조만간 미국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고 말하지만 멕시코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다.”(로렌사, 31세)

⑦ 일곱 번째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사회적 연결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가구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으로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친구, 의례적 대부관계, 친척, 혼인 관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조사를 한 가구는 미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여서 경제위기를 맞아 도움을 요청한 경우이다.

“동갑인 아내와 5남 3녀를 두고 있다. 자녀는 30세의 딸부터 16세의 딸까지 1-2세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농사만 지었다. 땅은 토질은 그다지 좋지 않아도 4ha가 있고 그밖에 소 11 마리, 양 4마리, 염소 6마리, 노새 2마리, 닭 10마리를 키운다. 농사나 가축을 돌보는 일은 아내와 같이 하고 아이들 1-2명의 도움을 얻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족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씹씹이도 많아져서 생활에 곤란을 겪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가족 중에 누가 생일이라도 맞거나 아니면 아프기라도 하면 빚이라도 내야 하는데 그 때마다 갚을 길이 막막하다. 요즘 마을에서는 생일 잔치도 거창하게 밴드도 부르고 음식도 여러 가지를 장만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 대접도 받기 어렵다. 결혼이라도 시키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저축해 놓은 것도 없어서 걱정이 태산 같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돈을 벌라고 말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큰 아이들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오아하카 시내의 호텔이나 가게의 점원으로 일 할 수 있는지 알아봐도 모두 고등학교 이상을 나와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아는 사람에게 통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1987년에 큰딸이 오아하카 시의 문구점에서 6개월 가량 일

했다. 하루에 4달러 50센트를 받았는데, 왕복 차비 1달러 70센트를 제외하고 어쩌다가 점심이라도 사먹는 날에는 남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지 4개월만에 그만 두었다.

큰딸은 실망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더 알아보다가 포기하고, 미국의 엔시니타스(Encinitas)에 살고 있는 숙모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숙모와 딸은 1998년 3월에 티화나에서 만나서 같이 미국에 들어갔다. 다행히 그 지역에는 아는 친척이 많아서 일자리도 쉽게 구하고 숙식도 친척집에서 해결하니까 생활하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수월했다고 한다. 숙모가 독촉을 해서 매달 급료를 타면 150달러씩 부쳤다. 처음에는 집 생각도 나고 도시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더니 1-2년 지나니까 살만하다고 한다.

1990년에는 23세의 둘째 아들이, 1992년에는 22세의 둘째 아들이, 1991년에는 17세의 둘째 딸이 미국으로 갔다. 딸은 언니와 같이 가정부로 일하고 두 아들은 농장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한다. 딸들은 돈을 벌면 꼬박꼬박 돈을 부치는데 아들들은 가끔 생각날 때 한번씩 보낸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돈만 쓰기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 것이 한결 낫다.

아이들이 보내 준 돈으로 주로 지금 기르는 가축을 샀다. 농지는 사려고 해도 좋은 곳은 거의 팔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현재 세 아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미국에서 보내 온 돈을 쓰고 남으면 조금씩 저축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한결 여유가 있다. 돈이 좀 더 모이면 아이들 결혼할 때 줄 집과 땅을 사놓을 생각이다.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으면 아이들은 고생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1995년부터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큰 문제는 없다. 물건 값이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덜 먹고 덜 쓰면 되기 때문에 당장 숨이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지내면 좋겠지만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떨어져서 사는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 때는 같이 살아도 될 것이다.”(프리미띠보, 56세)

⑧ 여덟 번째는 미국으로의 노동이주가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마을에서 미국에 갔다가 여러 가지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부정적 경험 때문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일부는 돈을 떼이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폭력이나 사고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에서 일 하는 동안 이민국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적발되어 많은 돈을 쓰고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온 가구이다.

“산 환 텔 에스파도에서 산길로 약 2시간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산 페드로 테오꾸일코(San Pedro Teocuilco)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땅도 척박해서 수익이 많지 않고 또 형제들이 성장을 하면서 땅을 나누어야 될 입장이어서 1970년에 이곳으로 왔다. 여기서 남의 집일을 도와주며 농업노동자로 일을 했고, 또 토지를 빌려서 소작도 했다. 그런데 일거리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소작을 하는 것도 날씨가 좋지 않아 수확량이 적으면 그나마 남는 것도 없어서 생활이 어려웠다. 그러다가 도시로 나가서 새로운 생활의 기반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1973년에 혼자 멕시코 시로 갔다. 장난감을 만드는 소규모 공장에서 일했는데 급료가 생각보다 낮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돈을 조금 모아 놓은 것을 도둑 맞아서 빈털털이가 되었다. 그래서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1978년에 와서 보니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일거리를 찾기도 거의 불가능했다. 나이도 점차 많아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 그 당시만 해도 산 환 텔 에스파도에서는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고향 마을의 친구를 따라 갔다. 이미 여러 번 국경을 건넌 경험이 있는 친구라 별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당시의 가구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산 마르코스(San Marcos)에 도착해서 정원사로 일했다. 당시만 해도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는 많

지 않아서 일을 하기는 비교적 쉬웠다.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아내와 두 딸을 초청했다. 남자아이들 두 명은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멕시코에 남겨놓았다. 아내와 딸들은 가정부로 일했는데 4명이 함께 생활하니 생활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았다. 거기서 농업노동자에게 주어진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받아서 이제는 합법체류자가 되었다. 1988년부터 산 마르코스의 빵 공장에서 트럭 운전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찾아갔다. 처음에는 멕시코인이라고 꺼리더니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고 이 지역에서 10년간 살아서 지리에 밝다고 하니깐 일자리를 주었다. 운전을 하니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일정하게 정해진 길만 다니니까 어려움은 없었다.

1995년 말에 가족을 데리고 산 환 델 에스파도로 돌아왔다. 미국은 돈을 벌기는 좋지만 정이 없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표현하기도 힘들었다. 노골적인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멕시코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많이 느껴서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자식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멕시코에 돌아오니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괜히 언론에서 지나치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또 생계대책이 막막하면 다시 미국에 가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당장 미국에 다시 갈 계획은 없다.”(페드로, 49세)

이주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각 사회마다 차이가 있고, 주어진 사회에서도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유사한 여건에 있는 사회라도 서로 다른 이주의 형태를 보일 수 있고, 한 사회에서도 사회경제적 조건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주의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예상치 못하게 이주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조건이 악화되면서 이주노동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려는 가구가 늘어났다. 즉 가구의 규모가 커서 젊은 노동력이 많은 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구원을 노동이주에 참여시킨다. 그렇지만 경제적 인구적 조건이 이주노동에 적합하다고 해도 가구에 따라 이주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경을 넘어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V. 이주의 형태와 농촌사회의 변화

근래에 들어 이주가 많아진 것은 단순히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북미자유무역협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즉 자유무역의 확산은 중하층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고 오히려 북미의 입장에서는 멕시코의 시장이 확대되어 미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지역에 값싼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소규모 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가격이 싼 물건의 유입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조사지에서도 자영업이나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농민들의 기대감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산 환 델 에스파도의 사람들은 이제 자유 무역협정이 맺어졌으니 필요하다면 아무나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에서 과거보다 노동이주를 생계를 해결하는 대책의 하나로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에 대량생산된 곡물의 유입으로 자신이 생산한 작물을 상업화하기 점점 더 어려운 소규모 경작자들은 이주가 유일한 탈출구이다(Farrag, 1997:329). 마을사람들은 대규모 상업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 소규모 경작자들이 생산하는 작물은 시장에서 제 값을 받고 팔기 어려워졌다. 즉, 농업과 비농업 분야에서

자유 무역협정은 농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 농민들을 노동이주로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 마을에서는 목재생산의 중단 이후에 이주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경제 위기 다음에는 이주의 빈도와 형태에 확연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노동이주를 함으로써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20대와 30대의 노동인구가 있는 가구가 유리하다고 하겠다. 사례에 보이는 가구들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노동이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가구주가 먼저 이주를 할 때에도 이어서 젊은 가구원이 뒤따라서 이주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모두 다 이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를 해서 일자리를 찾아도 대부분이 숙련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금노동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 노동이주는 어느 정도의 가족 규모가 되어야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다. 가족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서 마을에 남아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생계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야 나머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주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천수답이어서 많은 작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강수량이 적거나 작물의 재배시기에 따라 비가 고르게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제대로 못 한다. 그렇지만 가구 구성원이 미국에 건너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일거리를 잡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일정한 수입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집을 돌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구가 적어도 가구 당 1~2명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이주자를 내보내는 가구의 경우에도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보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정보와 관련하여 복미와 접촉이 가능한 가구가 훨씬 용이하게 구성원을 보낼 수 있다. 가족이나 친척 중의 일부가 가 있는 경우는 더욱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내의 친구나 이웃

의 도움을 얻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다. 사회관계의 형성은 가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고, 이것을 이용하는데도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정보를 얻거나 이주를 한 후에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일부의 경우에는 미국에 사는 친척이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도움을 주고받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이다. 이것은 가구 내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포함해서 기존의 경제활동으로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주가 선호되는 것이다. 특히 1995년의 경제 위기 이후 멕시코에서 북미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급박하게 닥친 현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가구유지를 위한 소득을 벌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즉 평소에도 농촌 사람들이 국제 노동이주를 해서 멕시코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득증대를 원하는데,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된 것은 멕시코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변화인데,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농촌의 경제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단순히 새로운 이주를 촉진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위기는 ‘이주 신드롬’을 이 지역까지 확산시켰다. 1995년 이후에 새로 국제 노동이주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이미 가본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의 일부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미 넘어가서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머무르려 하고, 과거에는 2~3년에 한번씩 국경을 넘어 일거리를 찾던 사람은 매년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 즉 기존에 이미 노동이주를 통해 가구의 생계를 해결하던 사람들도 미국에서의 임금노동을 강화하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불이익뿐만 아니라 미

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퍼지기 때문에 이주에 대한 태도도 과거와는 달라진다.

국제 노동이주가 멕시코 농촌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하지만 경제위기로 이주노동의 빈도와 기간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 이주 결과로 나타나는 송금은 농촌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농촌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송금이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농업이나 농촌의 산업생산에 투자되기보다는 소비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쓰인다는 것이다(Butterworth and Chance, 1981:84; Durand and Massey, 1992:25; Gledhill, 1991:237; Grindle, 1998:79; Kearney, 1986:346; Massey et al, 1987:216; Russel, 1986:688). 실제로 이런 현상은 여러 학자들의 경험적 조사에서 드러난다. 심지어 루벤스타인(Rubenstein, 1992:132)은 멕시코 농촌의 경제적 상황이 송금의 부정적인 사용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송금이 당장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농촌경제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농촌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송금의 역할과 영향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첫째,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업이나 농업외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송금으로 들어오는 현금을 가구내의 소비에 사용한다. 즉 송금이 생계유지를 부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농촌가구와 농촌사회의 유지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만일에 자신들의 농촌소득이 충분하면 당연히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송금의 활용은 각 가구의 특수한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로 대부분의 멕시코 농촌지역은 부족한 하부구조, 낮은 기술수준, 자연자원의 결여, 시장의 협소 등으로 생산적인 투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Durand and Massey, 1992:27). 따라서 송금이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농촌의 실정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의 송금 중에서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비율은 낮을지 몰라도 현재의 농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Massey et al, 1987:232; Hulshof, 1991:70-71). 송금으로 얻은 수익이 소규모이지만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농촌 산업에 투자된다면 농촌산업의 자본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Cook and Binford 1990; Stephen 1991 참조). 어쨌든 외부로 노동이주를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가져와서 농촌지역에서 사용되는 돈은 “지역의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가능성을 만든다”(Rothstein 1992:36)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와 투자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가 많다(Russel, 1992:270).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송금으로 산 자동차도 소유자가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기회가 생기면 소득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주자들이 보내오는 돈이 소비적인 곳에 많이 쓰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지만, 토지가 전혀 없는 농촌가구에게는 그나마 빈곤을 경감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Adelman et al, 1988:21-22).

산 환 텔 에스파도에서도 이주에 따른 송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한다. 1994년 현재 조사대상 가구 중에 이주자가 있는 32 가구를 보면 26 가구가 어떤 형태로든 송금을 받고 있다. 22가구는 가계에 돈을 쓰고, 한 가구는 토지를 사고, 두 가구는 각각 산업과 상업에 사용했으며, 한 가구는 나중에 필요한 용도에 쓰려고 은행에 저축을 했다(Joo, 1995:145-146). 1997년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데 경제위기 때문에 가계지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가구내의 소비를 위해 돈을 쓰는 경우에도 트럭이나 가축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소득을 얻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 급할 경우에는 팔아서 현금화하기 쉬운 것이다. 산 환 텔 에스파도에서는 아직 다른 마을에 비해 이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많은 송금액이 축적되지 못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겠다. 송금액이 이주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부정기적으로 오는 것도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 평균적으로 미국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오래 될수록 송금액수가 많아지고 정기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다. 이 마을에서는 이주자들의 송금액이 많아지면 그것을 자본으로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경제위기 이

후에 언제라도 또 다른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VI. 결론

농촌지역 내에서 부족한 경제적 자원을 보완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의 하나로 나타나는 국제 노동이주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가구 구성원의 일부가 임금을 획득하려고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은 가구 자체로 보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변화이지만 농촌 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멕시코와 같이 주기적인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이주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주에 대한 이해가 농촌의 사회경제구조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이주의 역학을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에 국제 노동이주가 활성화되지 않은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도 점차로 이주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특히 젊은 인적 자원이 풍부한 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이주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물론 멕시코의 경제적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국제 노동이주에 의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낮아지겠지만 완전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위기는 산 환 델 에스파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계 획득방식과 가치관을 경험하게 했고, 이에 따른 구성원의 이동과 송금은 농촌의 지역사회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다준다.

물론 농촌사회의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한다고 해도 모든 가구들이 기계적으로 이에 대응해서 생활여건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범주에서라도 농촌 사람들이 주어진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멕시코의 경제적 위기가 반드시 농촌의 궁핍화로 연결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국제 노동이주가 증가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마련해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경제위기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보다는 오히려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이주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렇듯 이주를 둘러싼 복잡한 사회과정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주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이주노동을 실현하려는 것에 대해 개인, 공동체, 국가적 수준을 포함하는 분석이 필요하다(Singer and Massey, 1998:567).

결론적으로 국제 노동이주는 멕시코 농촌의 경제위기를 부분적 혹은 일시적으로 해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 자원의 유입으로 농촌사회의 변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따라서 멕시코 농촌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할 때, 단순히 그 지역에 국한된 현상만을 놓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겠다. 즉, 한 사회와 그것을 둘러싼 여러 외부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검토해서 사회문화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주종택, “라틴 아메리카의 농촌변화와 농민의 성격,” 『라틴 아메리카 연구』 8(1):235-262, 1995.
- “멕시코”, 홍원탁(편), 『아시아·태평양 1997』, 서울: 까치, 1997.
- Adelman, Irma, J. Edward Taylor, and Stephen Vogel "Life in a Mexican Village: A SAM Perspective,"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5(1):5-24, 1988.
- Arizpe, Lourdes *Migración, Etnicismo y Cambio Económico*,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1978.
- _____, "The Rural Exodus in Mexico and Mexic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5(4):626-649, 1981.
- Bustamante, Jorge A. "Mexico-United States Labor Migration Flow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1112-1121, 1997.
- Butterworth, Douglas and John K. Chance *Latin American Urbaniz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Chavez, Leo R., F. Allan Hubbell, Shiraz I. Mishra, and R. Burciaga Valdez "Undocumented Latina Immigrants in Orange County, California: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17:88-107, 1997.
- Chayanov, A. V.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6.
- Chonchol, Jacques "Agricultural Modernization and Peasant Strategies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24:135-151, 1990.
- Cook, Scott and Leigh Binford *Obliging Need: Rural Petty Industry in Mexican Capitalism*,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0.
- Durand, Jorge and Douglas Massey "Mexican Migration to the

- United State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7(2):3-42, 1992.
- Eades, Jeremy "Anthropologists and Migrants: Changing Models and Realities," in Jeremy Eades(ed.), *Migrants, Workers, and the Social Order*, pp. 1-16, London: Tavistock, 1987.
- Escobar, Agustín, Mercedes González, and Bryan Roberts "Migration, Labour Markets,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Jeremy Eades(ed.), *Migrants, Workers, and the Social Order*, pp. 42-64, London: Tavistock, 1987.
- Farrag, Mayar "Manag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Migration* 35(3):315-336, 1997.
- Gledhill, John *Casi Nada: A Study of Agrarian Reform in the Homeland of Cardenismo*,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 _____, "The Mexican Contribution to Restructuring US Capitalism: NAFTA as an Instrument of Flexible Accumulation," *Critique of Anthropology* 18(3):279-296, 1998.
- Grindle, Merilee S. *Searching for Rural Development: Urban Migration and Employment in Mexico*,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 Gutmann, Matthew C. "For Whom the Taco Bells Toll: Popular Responses to NAFTA South of the Border," *Critique of Anthropology* 18(3):297-315, 1998.
- Hulshof, Marije *Zapotec Moves: Network and Remittances of U.S.-Bound Migrants from Oaxaca, Mexico*, Amsterdam: University of Amsterdam Press, 1991.
- Joo, Jong-Taick "Corn-Buying Peasants: The Capitalist Development of Forestry Production and Its Impact on the Diversity of Local Economy in Oaxaca, Mexico,"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1995.

- Kearney, Michael "From the Invisible Hand to Visible Feet: Anthropological Studies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5:331-361, 1986.
- Luque González, Rodolfo and Reina Corona Cuapio "La Migración y la Dinámica Demográfica en Oaxaca," in J. Corbett et al(eds.), *Migración y Etnicidad en Oaxaca*, pp. 13-18,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92.
- Marcelli, Enrico A. and David M. Heer "Unauthorized Mexican Workers in the 1990 Los Angeles County Labour Force", *International Migration* 35(1):59-83, 1997.
- Massey, Douglas, Rafael Alarcón, Jorge Durand, and Humberto González *Return to Aztlán: The Social 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Western Mexic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Reichert, Joshua "The Migrant Syndrome: Seasonal U.S. Wage Labor and Rural Development in Central Mexico," *Human Organization* 40(1):56-66, 1981.
- Ríos Vásquez, Othón C. "Estudio de la Migración de Trabajadores Oaxaqueños a los Estados Unidos de America," in J. Corbett et al(eds.), *Migración y Etnicidad en Oaxaca*, pp. 25-34,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92.
- Roberts, Kenneth "Household Labor Mobility in a Modern Agrarian Economy: Mexico", in G. Standing(ed.), *Labor Circulation and the Labor Processes*, pp. 358-381, London: Croom Helm, 1985.
- Rothstein, Frances Abrahamer "What Happens to the Past? Return Industrial Migrants in Latin America," in F. Rothstein and M. Blim(eds.), *Anthropology and the Global Factory: Studies of the New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pp. 33-46, N.Y.: Bergin & Garvey, 1992.

- Rubenstein, H. "Migration, Development and Remittances in Rural Mexico," *International Migration* 30(2):127-151, 1992.
- Russel, Sharon Stanton "Remittances from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in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14(6):677-696, 1986.
- _____, "Migrant Remittance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Migration* 30(3/4):267-283, 1992.
- Singer, Audrey and Douglas S. Massey "The Social Process of Undocumented Border Crossing among Mexican 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23:561-592, 1998.
- Smith, Robert "Closing the Door on Undocumented Worker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31(4):6-9, 1998.
- Stephen, Lynn *Zapotec Wome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1.
- Wiest, Raymond "Wage-Labor Migration and the Households in a Mexican Town,"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29(3): 180-209, 1973.
- Wilson, Tamar Diana "Theoretical Approaches to Mexican Labor Migr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0(3):98-129, 1993.
- _____, "Weak Ties, Strong Ties: Network Principles in Mexican Migration", *Human Organization* 57(4):394-403, 1998.